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 정 미 · 이 숙*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Influences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Verbal Abuse on Children's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Choi, Jung Mi · Lee Sook*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Univ. Gwangju, Korea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Chonnam Univ. Gwa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lineate the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verbal abuse on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in children. The sample consisted of 542 pairs of fifth/sixth graders and seventh/eighth graders, and their mothers. The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age/education level and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level,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level factor showed differences correlating to the mother's education level. Second,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age/education level and the verbal abuse, the verbal abuse factor showed differences correlating to the mother's age/education level. Third, looking 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level and the verbal abuse, the verbal abuse factor showed differences correlating to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level. Forth,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s of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verbal abuse on the children's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indicated that verbal abuse was the significant contributing factor.

Key words: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s, verbal abuse, parenting stress

I. 서론

아동에게 있어 정서적 안정감은 건전한 인격

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는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정서의

이 논문은 2003년도 전남대학교 Post-Doc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접수일: 2005년 10월 23일 채택일: 2005년 11월 20일

Corresponding Author: Choi, Jung Mi Tel: 82-62-530-1317

E-mail: shuma523@hanmail.net

개념은 모호하여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정서란 분노, 공포, 환희와 같이 감정이 분화된 상태로써 정서적으로 자극된 상황에 있을 때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정한 신체적 변화와 동기화된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 여기에서 자신의 성장과 발달 면에서 이탈된 행동을 하는 것을 정서적 부적응 행동이라 한다(김형호 1978). 오늘날 산재되어 있는 정서적, 사회적 부적응아는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있으며, 그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누적되어 많은 문제를 크게 야기 시키고 있다. 정서적 부적응아는 생활 장면에서 성격부조화나 성격장애 등의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는데, 부적응 아동이 아닌 정상아에게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의 부적응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것은 반복적 발생이 예상되고,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반복에 의해 차츰 고정화되어 성격 구조 속에 자리잡게 되어 고쳐지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어린시절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보내게 되는 아동들에게 있어 가정의 제반 환경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 유발에 있어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가정의 제반 환경 중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가정생활에서 끊임없이 자녀에게 작용하고 또 자녀는 이에 대하여 끊임없이 일정한 반응을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장시간에 걸쳐 반복되는 사이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게 되어 마침내 학교나 사회에 있어서의 아동 문제의 양상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다.

Barber(1998)는 메타분석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간의 관계이고, 그 관계에는 아동의 특성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더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면서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는데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 볼 필요성을 제기해주었다. 김형호(1978)는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아동들의 부적응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유형면에서 “사회적 고립현상”을 보이는 아동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아동들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무관심과 결손가정에 원인이 있다고 하였으며, Horney(1964) 역시 아동들이 문제행동을 나타내게 되는 원인은 주로 가정 내에서 부모들의 양육태도 방법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Hallahan과 Kauffman(1978)도 정서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들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가정의 특성과 관련시켜 조사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과 그 가정환경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양육스트레스를 지적하였고(Abidin 1992),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지각과 명령, 처벌과 같은 양육행동과 연관된다는 결과들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으며(Bierman & Smoot 1991; Dadds 1987; Krech & Johnston 1992; Patterson 1982), 특별히 양육스트레스가 많은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이나 비난을 많이 하는 등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손상하였음이 보고 되었다(서소희 1994; Webster-Stratton 1990; Whipple & Webster-Stratton 1991).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송주미 1992; Patterson 1983)에서도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면 자녀에게 더 짜증을 내며, 이는 다시 자녀의 공격적인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포함시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편 학대받은 아동은 대부분 불행, 슬픔, 절망감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다(연진영 1992). 아동학대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는 경우에도 누적효과가 클 수 있으며, 단 한번의 학대에 의해서도 학대의 정도에 따라서는 아동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많은 연구들은 학대받은 아동의 후유증이나 문제들을 보고하고 있다(김광일 1989;

Gayford 1975). 아동학대의 결과는 타박상, 화상, 골절, 탈골 등의 상처가 흉터와 같은 흔적을 남기는 등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신경학적 이상을 초래하여 정신지체나 언어장애를 보이기도 한다(Light 1973). 또한 많은 연구들은 피학대 아동이 보통 이상으로 과격하고, 자아개념이 낮으며, 신뢰심이 부족하고, 대인관계가 나쁘며, 비정상적 애착의 태도를 보인다는데 동의하고 있다(Baher 1976; Green 1985; Kent 1976; Martin & Walters 1982).

지금까지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가출 아동, 내원 아동 등 이미 문제 아동으로 취급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김혜영 1990; 주영희 1984), 학대유형 및 학대정도 등에 관한 실태파악이나 소아과적, 외과적 수준의 임상적 증례 보고(김광일 1989; 안동현·홍강의 1987)에만 중점을 두어왔다. 영역별로는 학대의 구분이 뚜렷한 극단적인 신체적 학대는 많이 연구되었고, 정의를 내리기가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정서적 학대 영역은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다(Creighton 1988; Pagelow 1984). 이에 대해 고성혜(1992)는 정서적 학대의 결과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즉시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그 중요성과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연구되어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정서적 학대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진영(1992) 역시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실태 및 영향을 보고한 연구에서 우리가 흔히 학대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언어적 학대 및 방임은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보다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언어적 학대임을 밝히고 있다. Ney(1987) 또한 언어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아동에게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학대는 아동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으며, 관련문헌들은 '공격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많은 경고를 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제반 연구들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이 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연진영 1992; Bousha & Twentyman

1984; Ney 1987).

아동에 대한 학대는 가정 이외에 학교, 사회조직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인 학대는 아동의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아동 양육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어머니에 대한 학대 연구가 보다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의 대다수 연구는 요보호 아동이나 학대받은 아동들의 임상적 증례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일반 가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학대를 포함한 정서적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혜련 1994; 연진영 1992)가 어느 정도 수행되어왔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학대에 있어 부모는 모든 접근에서 의미 있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의 연령 및 학력과 아동 학대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의 연령은 낮으며(Faller 1981; Kinard 1979; Leventhal 1981) 나이가 적은 어머니들이 나이드는 어머니보다 자녀를 더 학대한다는 보고가 있다(Mussen, Conger, Kagan, & Huston, 1984).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아동학대의 실태를 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김혜영 1989; 신영화 1986; 주영희 1984; Gil 1971; Ory & Earp 1981).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아동학대에 관해 부모의 연령과 학력이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언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의 관련변인들을 규명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여겨 아동의 정

서적 부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를 관련변인으로 선정하여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냄으로써 예방 차원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2.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언어적 학대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언어적 학대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4.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그들의 어머니들로 총 600쌍을 대상으로 2004년 4월 6일부터 11일 사이에 배부, 회수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질문지의 내

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중 응답이 누락된 자료나 불성실하게 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54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 도구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번안하여 사용한 신숙재(1997)의 양육스트레스 30문항을 어머니를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실제로 요인들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수를 3개로 지정한 후에 주성분 분석과 오블리민 회전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확인되었고, 각 요인의 고유치는 요인 1이 5.12, 요인 2가 1.86, 요인 3이 1.36이었으며, 각각의 설명되는 변량은 25.58%, 9.31%, 6.79%로 나타났다. 이 3개 요인의 문항내용에 기초하여 요인 1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요인 2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그리고 요인 3은 '학습 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라고 명명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3개 요인을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변인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양육스트레스의 측정도구는 하위요인별로,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9문항 그리고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3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20 문항이다.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4, .74, .71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양육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언어적 학대

언어적 학대의 측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언어적 학대에 관한 제 연구(고성혜 1992; 신영화 1986)를 토대로 연진영(1992)이 제작한 15개 문항 중 지나치게 표현한 부분(예: 너 같은 것은 죽어도 싸다, 때려 죽여버리겠다 등)을 배제시킨 8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542)		
Variables	Division	N (%)
Gender of child	Male	268(49.4)
	Female	274(50.6)
Grade of child	5 grade of elementary school	112(20.7)
	6 grade of elementary school	152(28.0)
	1 grade of middle school	159(29.3)
	2 grade of middle school	119(22.0)
Age of mother	Under 37 years	183(33.8)
	38 - 41 years	178(32.8)
	Over 42 years	181(33.4)
Education of mother	Under high school	326(60.1)
	Over university	216(39.9)

아동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 혹은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으로 부모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유형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아동으로 하여금 제시된 예제에서 나타난 말들을 지난 일년동안 들은 경험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범주는 1년에 '한번도 없었다(없다)', '드물게 있었다(1년에 2-3번)', '가끔 있었다(1달에 2-3번)', '자주 있었다(1주일에 1-2번)'로 나누어 1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언어적 학대를 경험하는 수준이 높은 것이다. 신뢰도 계수(Cronbach'a)는 .88로 나타났다.

3) 정서적 부적응 행동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측정도구로서는 Achenbach (1978)가 제작한 아동행동에 관한 질문지(Child Behavior Checklist)와 Quay(1972)가 제작한 정서적 부적응 질문지를 참고로 김영숙(1988)이 제작한 도구를 아동들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5개의 요인 즉,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으로 변인을 선정하여 각 요인마다 10개 문항씩 총 50문항으로, 응답은 범주형으로 '그렇다'에 1, '아니다'에 0으로 1에 가까울수록 정서적 부적응 행동 발생 가능

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a)는 위축행동 .69, 과잉행동 .66, 공격행동 .69, 퇴행행동 .57, 강박행동 .7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요인분석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값을 산출하였으며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t검정, 상관관계 분석을,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p<.05)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p<.001)에서 유의미

Table 2. Difference in the age and the education of mothers on parenting stress

	Mean(SD)					
Mother's age	Stress related to child's temper		Stress related to relationship with child		Stress related to learning expectation	
Under 37years	16.17	(5.11)	20.36	(5.23)	7.52	(2.53)
38-41years	16.06	(5.37)	20.30	(5.30)	7.20	(2.54)
Over 42years	15.84	(5.07)	20.90	(5.09)	7.68	(2.59)
<i>F</i>	.18		.65		1.56	
Mother's education	Stress related to child's temper		Stress related to relationship with child		Stress related to learning expectation	
Under high school	15.99	(5.16)	20.89	(5.32)	7.83	(2.50)
Over university	16.10	(5.22)	19.93	(4.99)	6.91	(2.54)
<i>t</i>	.26		2.33*		4.52***	

* p<.05, *** p<.001

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어머니 집단보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남유리 1989; 선미정 1994)과 일치한다.

2.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언어적 학대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언어적 학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언어적 학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만 37세 미만인 어머니 집단이 만 38세 이상인 어머니 집단보다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Faller 1981; Kinard 1979; Leventhal 1981; Mussen et al. 1984)의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0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어머니 집단보다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광일·고복자 1987; 김혜영 1990; 신영화 1986; 주영희 1984; Gil 1971; Ory & Earp 1981; Pelton 1978)과 일치한다.

Table 3. Difference in the age and education of mothers on verbal abuse

Variables	Division	M (SD)	D	F/t
Mother's age	Under 37years	18.42 (4.25)	a	3.80*
	38-41years	17.49 (3.52)	b	
	Over 42years	17.52 (2.74)	b	
Mother's education	Under high school	18.25 (3.75)		2.86**
	Over university	17.21 (3.31)		

* $p<.05$, ** $p<.01$ D: Duncan's test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언어적 학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언어적 학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따른 언어적 학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중집단 이상이 하집단 보다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언어적 학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집단으로 갈수록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 따른 언어적 학대 또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01$), 이는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중집단 이상이 하집단 보다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4. Difference in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on verbal abuse

Variables	Division	M (SD)	D	F
Stress related to child's temper	Upper	18.23 (3.81)	a	3.63*
	Medium	18.03 (4.12)	a	
	Lower	17.23 (2.72)	b	
Stress related to relationship with child	Upper	18.27 (3.98)	a	3.70*
	Medium	17.98 (4.04)	ab	
	Lower	17.26 (2.71)	b	
Stress related to learning expectation	Upper	18.22 (3.77)	a	5.37**
	Medium	18.26 (3.82)	a	
	Lower	17.17 (3.25)	b	

* $p<.05$, ** $p<.01$ D: Duncan's test
 group division : lower<M-SD, M-SD≤medium≤M+SD, M+SD<upper

4.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의 영향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제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위축행동은 언어적 학대($r=.17$, $P<.01$), 자녀

Table 5. Correlation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 Mother's age										
2. Mother's education	0.07									
3. Stress related to child's temper	0.00	-0.04								
4. Stress related to relationship with child	0.00	-0.10*	0.46**							
5. Stress related to learning expectation	-0.04	-0.19**	0.44**	0.38**						
6. Verbal abuse	-0.04	-0.11*	0.09*	0.12**	0.16**					
7. Withdrawal	-0.01	-0.10*	0.09	0.12**	0.07	0.17**				
8. Hyperactivity	0.01	-0.07	0.11*	0.09*	0.12**	0.28**	0.29**			
9. Aggression	-0.03	0.04	0.12**	0.10*	0.02	0.25**	0.33**	0.56**		
10. Regression	-0.01	0.00	0.05	0.05	0.08	0.25**	0.49**	0.44**	0.34**	
11. Compulsion	-0.02	0.01	0.03	0.08	-0.01	0.33**	0.54**	0.48**	0.46**	0.60**

* p<0.05, ** p<0.01

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12, P<.01$), 모학력 ($r=-.10, P<.05$), 과잉행동은 언어적 학대($r=.28, P<.01$)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r=.12, P<.0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r=.11, P<.05$),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09, P<.05$), 공격 행동은 언어적 학대($r=.25, P<.0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r=.12, P<.05$),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r=.10, P<.05$), 퇴행행동은 언어적 학대($r=.25, P<.01$), 강박행동은 언어적 학대($r=.33, P<.01$)로 정서적 부적응행동과 관련이 있었다.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제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연령, 학력 및 양

육스트레스, 언어적 학대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에 제시한 바대로 언어적 학대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위축행동은 언어적 학대 ($\beta=.15, p<.001$),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beta=.12, p<.01$)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 과잉행동은 언어적 학대($\beta=.27, p<.001$),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beta=.10,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로 나타났다. 공격행동은 언어적 학대($\beta=.24, p<.001$), 자

Table 6. Regression to the children emotional maladjustmental behavior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R^2	F
Withdrawal	Verbal abuse	.08	.15***	.04	10.54***
	Stress related to relationship with child	.05	.12**		
Hyperactivity	Verbal abuse	.16	.27***	.08	23.77***
	Stress related to child temper	.04	.10*		
Aggression	Verbal abuse	.13	.24***	.07	18.69***
	Stress related to child temper	.04	.10*		
Regression	Verbal abuse	.13	.25***	.06	32.26***
Compulsion	Verbal abuse	.23	.33***	.11	61.60***

* p<0.05, ** p<0.01, *** p<0.001

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beta=.10$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 퇴행행동과 강박행동은 언어적 학대($\beta=.25$, $p<.001$, $\beta=.33$ $p<.001$)가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각각 6%, 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혜련 1993)와 일치한다. 한편,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양육스트레스나 언어적 학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가 어머니의 연령 및 학력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언어적 학대의 차이를 살펴보고,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언어적 학대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아동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의 정도가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권경희 1985; 이현주 1999)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어머니 집단보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자녀양육방법에 따른 자신감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과 관련되므로 어머니

가 경험하는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에 따른 언어적 학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먼저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언어적 학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37세 미만인 어머니 집단이 만 38세 이상인 어머니 집단보다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Faller 1981; Kinard 1979; Leventhal 1981; Mussen et al. 1984)의 결과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연령은 자녀 양육의 직접, 간접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그 자녀에게 맞는 적절한 상호작용방법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며 이러한 이유로 자녀와의 갈등이 언어적 학대로 이어지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어머니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어머니 집단보다 언어적 학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김광일·고복자 1987; 김혜영 1990; 신영화 1986; 주영희 1984; Gil 1971; Ory & Earp 1981; Pelton 1978)과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 양육시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언어적 학대를 더욱 많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융통성 있고 기술적이므로(조병은 등 1995),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보다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적 양육행동이 높게 나타나고(최정미 1999), 자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으며(Baumrind 1967) 자율성을 더 많이 인정해주고, 협동적인 관계를 맺으며(Schaefer & Bayley 1969), 자녀에게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고 호기심을 격려하고 실제적으로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이원영 1983) 언어적으로 학대를 덜 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언어적 학대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

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경험하는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모역할을 잘 하기가 어려워지고 강압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신숙재 1997) 언어적 학대를 더욱 많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의 존재는 어머니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매일매일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해결해주면서 자녀가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의 많은 노력과 댓가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으며, 자녀가 기대에 따르지 않을 때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때로는 정보나 방법을 잘 몰라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만약 이런 경우에 주변에서 어머니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머니는 다시 힘을 얻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좋은 부부관계는 부모가 양육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정서적인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Minuchin 1974) 남편의 부모로서의 협력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설명하는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언어적 학대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는 아동의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및 강박행동 모두에 매우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가장 큰 주효과를 작용하는 변인이 언어적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변인이 언어적 학대라고 보고한 연진영(199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에게서 언어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아동들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위축, 과잉, 공격, 퇴행, 강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위

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 행동발달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고(서소희 1994), 부정적인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일 뿐 아니라 더 많은 명령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주미 1992). 따라서 어머니의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자녀가 어머니의 기대대로 잘 따르지 않아 힘이 들고,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여길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부정적으로 대함에 따라 아동의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자녀의 기질이 까다롭다고 인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며(김기현·조복희 2000; Mash & Johnston 1990; Webster-Stratton 1990), 부모나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스트레스 지각에 더욱 중요하다(고성혜 1994; Levitt et al. 1986)고 하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자녀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므로 아동의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모든 요인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밝혀졌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또한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요인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밝혀졌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어머니 변인뿐만 아니라 아버지 변인도 포함시켜 연구를 확대할 것과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학대와 양육스트레스만이 아닌 포괄적인 변인에 관한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정서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하는 아동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을 어머니에 의한 언어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어머니

들이 습관적으로 자녀에게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성향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를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고성혜(1992) 아동학대개념 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 박사논문.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권경희(1985) 한국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
 김광일(1989) 가정폭력. 서울 : 탐구당.
 김광일 · 고복자(1987) 아동구타의 발생을 조사. 정신건강연구 6, 66-81.
 김기현 · 조복희(2000) 맞벌이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1(4), 35-50.
 김영숙(1988)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 석사논문.
 김형호(1978) 아동의 부적응에 관한 일 연구. 진주교대 논문집 제 15집.
 김혜련(1994) 부모의 언어적 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논문.
 김혜영(1990)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가출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비교. 이화여대 석사논문.
 남유리(1989)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연구 : 취업주부는 서울시내 일부 여중고 교사를 중심으로. 이대 석사논문.
 박해미(1994) 자녀 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서소희(1994) 자폐아 연령군에 따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 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논문.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논문.
 신영화(1986)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정환경에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안동현 · 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현황. 정신건강연구 6, 53-65.
 연진영(1992)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이현주(199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우석대 석사논문.
 조병은 외 8인(1995) 3세대를 통해서 본 모-자녀 애

착관계와 사회적 능력 : 전생애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86-93.
 주영희(1984)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조사연구. 사회복지 80, 71-133.
 최정미(1999)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 결혼적응,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논문.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 Manual Pediatric psych.
 Abidin RR(1992)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 : Test Manual.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Barber BK(1998) Interparental conflict styles and youth problem behaviors : A two-sample replic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119-132.
 Baumrind D(1967) Childcare practice, antecedent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 345-348.
 Bousha D & Twentyman C(1984) Mother-child interactional style in abuse, neglect, and control groups ; Naturalistic observations in the h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3, 106-114.
 Creighton ST(1988) Quantitative assessment of child abuse. In Child abuse, P. Maher(ed.), Oxford : Basil Blackwell.
 Fallor KC(1981) Social Work with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New York:The Free press.
 Gil DG(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37-648.
 Green A(1985) Child abuse and neglect. In : The Clinical guide to child psychiatry edited by shaffer, D., Ehrhardt, A.A. & Greenhill, L.L., New York, The Free Press.
 Kent JT(1976) A Follow-up study of abused children. Journal of Pediatior. Psychol 1, 25.
 Kinard EM(1979)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abuse for the chi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2), 82-100.
 Leventhal JH(1981) Risk factors for child abuse, methodologic standards in case-control studies. Peaiatrics 68, 684-690.
 Levitt MJ, Weber RA, Clark MC(1986) Social network relationships as sources of maternal support and wellbe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0-316.
 Martin MJ & Walters J(1982) Familia; correlates of selected typ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267-276.
 Mash EJ & Johnston C(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313-328.
 Minuchin S(1974) Family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ussen P Conger, Kagan J, Huston A(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6th ed. 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 Ney PG(1987) Does verbal abuse leave deeper scars : A study of children and parent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32, 371-378.
- Ory MG, Earp JAL(1981) Child Maltreatment and the use of social services, *Public Health Reports* 96(3).
- Pagelow MD(1984) *Family Violence*. New York : Praeger.
- Pelton LH(1978) Child Abuse and Neglect and Neglect : The Myth of Classlessnes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8(4).
- Schaefer ES, Bayley N(1969) Maternal behavio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G. R. Medinnus(ed.),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Y. : John Wiley & Sons, Inc.
- Webster-Stratton C(1990) Stress : A potential disrupter of parent perceptions and family interaction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9, 302-312.